

KTX·SRT 내년 통합…호남선 주말 日4천600여석 증가

정부, 이원화 고속철 통합로드맵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SRT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기로 해 호남선 좌석 공급이 주말 하루 기준 약 4천600여석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주말마다 '예매 전쟁'에 시달려온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고속철도 관련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3월

3월 교차운행 시작…하반기 통합 편성

호남선 서울역 882·수서역 3천802석 ↑

정준호 "주말 예매 전쟁 완화되길 기대"

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는 통합 편성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내년 말까지 예매 시스템 단일화 등 운영 통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합을 통해 열차 회전율을 높이면 좌석 공급이 전국적으로 하루 1만6천690석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선의 경우 주말 1일 기준 4천684석(서울역 기준 882석, 수서역 기준 3천802석)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년째 이어진 '주말 예매 전쟁' 완화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예·발매 체계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내년 중에는 코레일과 SRT 어느 앱에서든 서울·용산·수서 등 모든 고속철도역 열차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연말까지는 하나의 앱에서 결제·발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열차 간 환승 할인과 KTX-SRT 간 열차 변경 시 최소 수수료 면제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도 도입된다.

차량 호환 운행을 위해 개발된 운영 소프트웨어는 추가 안전 검증 등을 거친 후 현장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이날 "KTX-SRT 통합은 대국민 고속철도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숙원사업인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뿌듯하다"며 "통합이 되면

호남선 KTX 좌석 수가 하루 4천600석 이상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1만6천석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관 통합이 내년 말 완료되더라도 교차 운행과 예매 앱 통합 등 운영 통합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을 통해 호남선을 포함해 국민의 고속철 예매 전쟁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KTX-SRT 통합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서구 자원봉사자 대회 광주서구 자원봉사자 대회가 8일 광주일가정원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열려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서구 제공)

"전남에 현대차 투자 유치·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대규모 재생에너지 를 확충해 현대자동차그룹 투자를 준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현대차그룹이 수전해 수소 생산플랜트와 AI 데이터센터를 전남·북에 구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 유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전남은 풍부한 부지와 용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등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최적지"라며 현대차 투자 대비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올해 초 나라가 백척간 두 위기에서 출발했지만 새 정부 탄생 이후 모

금지사 "부지·용수·신재생에너지 최적지"

"단군 아래 최대 황금찬스 살려야" 강조

두가 숨기쁘게 노력한 결과, 전남은 단군 아래 최대 황금찬스를 맞았다. 기회를 잘 살려 진짜 황금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비상시국 상황에서 호남이 나라의 근본을 지키고 잘 극복하면서 이제 맹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맡바탕이 됐고, 이에 대통령이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전남에 탄생대로의 길을 만들어줬다"고 지난 1년을 회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황금같은 기회는 기회

일뿐이다. 앞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며 "최대 과제인 에너지 문제를 잘 풀어간다면 전남은 농업 AX 플랫폼 추진 등으로 전통 농수산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첨단산업을 선도하면서 문화관광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고 표준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 두 글로벌 대학이 통합하기 때문에 전남도 의과대학 추진도 잘 펼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6년 2월 전남도 통합대학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으면 이르면 2027년 개교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재정 기자

'DJ 노벨평화상' 25주년 특별전 연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내년 3월까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8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컨벤션동 1층 전시실에서 '피스메이커 김대중, 평화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9일부터 2026년 3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개막식은 문화·예술·교육계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9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전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관련 사진과 노벨평화상 상장·메달 ▲노벨평화상 수상 시계 ▲2007년 노벨상 시상식 공식 만찬 테이블에 오른 식기 ▲고(故) 김홍일 의원(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이 기념관에 기증한 대형 도자기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장은 "시민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평화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올해의 사자성어 '變動不居' (변동불거)

'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성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면서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이었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주천한 양일모 서울대 지우전공 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놓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

/연합뉴스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도로 광주 미일신문 광고.
사랑받는 광고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점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 컴퓨터 ◉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팩스용지 ◉ 판매
임 대 ◉ A/S

T.375-5880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